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자산탁은 모두자산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자산탁으로 전세계 기업 주식에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투자자산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투자자산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모투자자산탁 주요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트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을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주식모투자자산탁 주요 투자전략: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시장 상황, 투자자산군 별 리스크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및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투자자산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56억 원

-채권모투자자산탁 1,002억 원

-주식모투자자산탁 915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자산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자산탁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7년 05월 02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5년 06월 29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08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24년 09월 27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 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증 환헤지 비중 90.0%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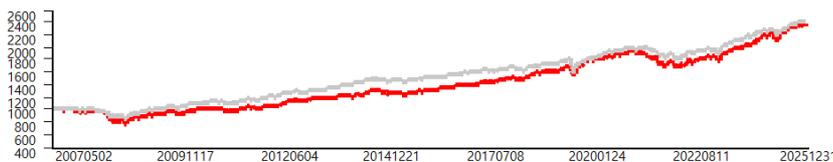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02%	-0.18%	2.31%	8.43%	22.22%	36.47%	27.79%	134.23%
클래스 C-P(퇴직연금)	-0.13%	-0.48%	1.70%	7.15%	19.35%	31.69%	20.38%	60.33%
클래스 C-P(퇴직연금)E	-0.10%	-0.40%	1.87%	7.51%	20.16%	33.03%	22.44%	57.87%
클래스 C-P2(연금저축)E	-0.10%	-0.41%	1.85%	7.47%	-	-	-	9.77%
벤치마크	0.69%	1.08%	3.97%	7.67%	17.94%	31.04%	27.86%	141.88%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므로,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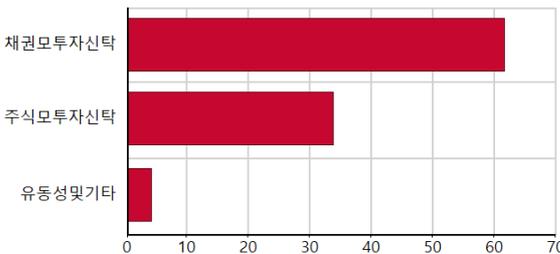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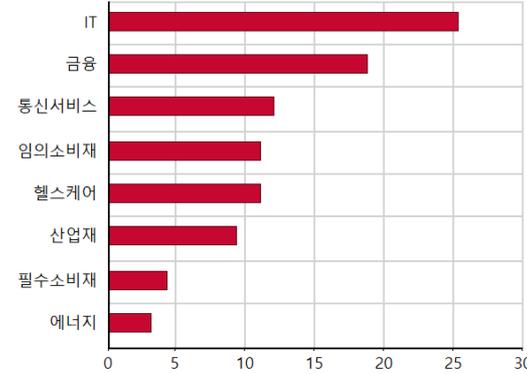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모투자자산탁	61.70
2	주식모투자자산탁	34.10
3	유동성및기타	4.20



<주식 업종별> - 주식모투자자산탁 편입 비중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25.40
2	금융	18.90
3	통신서비스	12.00
4	임의소비재	11.20
5	헬스케어	11.10
6	산업재	9.40
7	필수소비재	4.40
8	에너지	3.10



상위 보유 종목

종목명 (12월말 기준, 주식모투자자산탁 주식비중)	비중(%)
NVIDIA Corp	5.2
Apple Inc	4.7
Tokyo Electron Ltd	4.6
L3Harris Technologies Inc	4.5
Amazon.com Inc	4.5
종목명 (12월말 기준, 채권모투자자산탁 채권비중)	비중(%)
국02250-2806(25-4)	17.7
롯데카드539-4	8.0
국03750-3312(13-8)	5.1
JB 우리캐피탈530-4	5.0
미래에셋캐피탈123	5.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은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2% (판매 0.69%)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86%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94% (판매 0.43%)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4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C-P, C-PE, C-P2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혼조세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으로 한 해를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말 차익실현의 영향으로 기술주와 시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나타난 반면, 경기민감주와 가치주는 연말 연휴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 시장이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성은 여전히 존재했으나, 유럽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증시는 월중 간헐적으로 회복력을 보였지만, 신흥국 시장은 중국의 간헐적인 변동성과 불균형한 내수 수요에 대한 우려로 보다 혼조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주와 AI 업종은 글로벌 통화정책 기대 변화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 이전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치주 성과가 성장주 성과를 상회하면서 모펀드에서는 비교지수 성과를 하회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IT, 금융 업종에서의 종목선택이 필수소비재와 산업재에서의 종목선택 효과를 상쇄하였습니다. 지리적 관점에서는 스페인, 브라질, 독일 시장에 대한 배분이 펀드 성과에 성공적이었고 미국, 네덜란드, 한국 시장에서의 배분은 펀드 성과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 습니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월초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여파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경기 개선 기대감에 일본 은행(BOJ)의 인상 우려가 더해지며 약세 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금리 레벨이 국내 경기 펀더멘털을 상회하여 과도한 긴축 경계감까지 선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폭을 일부 되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 중 ECB 슈나벨 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RBA 통화정책회의 내 추가 긴축 가능성 언급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채권물 대량 매도가 부각되며 시장 심리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RP 매각 증권 확보용 국고채 단순매입(1.5조 원)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연말 특유의 얇은 수급 장세 속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에 연동되며 금리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BOJ의 금리 인상 단행 이후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국내 시장 역시 취약한 투자심리 속에 약세 압력이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수급 대책 발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재개 등에 힘입어 환율이 급락하며 시장 흐름은 반전되었습니다. 1,480원을 상회하던 환율이 1,430원대로 하락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 또한 그간의 약세 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3.9bp 하락한 2.951%,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월 대비 4.0bp 상승한 3.385%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기술과 혁신이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기순환 섹터와 중소형주, 미국 외 지역으로 수익 기여가 확대되며 시장의 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 확대와 우호적인 통화 여건이 맞물린 정책 환경은 투자와 성장을 지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OBBB 정책과 규제 완화는 제조업·인프라·AI 및 첨단 산업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누적 금리 인하는 금융 여건과 신용 접근성을 개선하며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불확실성, AI 중심의 시장 집중도는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와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개선, 헬스케어의 구조적 성장 기회는 여전히 매력적이며, 포트폴리오는 경기순환적 성장과 헬스케어 비중 확대를 통해 균형과 회복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 환경 속에서도 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영역에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미래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월 국고채 금리는 연초 기관 자금 집행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우세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대책 이후 원화 약세 심화 우려가 완화된 점과 더불어, 기재부가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발행의 약 8% 수준으로 제시하며 수급 여건을 고려한 물량 조절 의사를 시사한 점 역시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또한 연말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물가, 성장, 수도권 주택가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년사 등을 통해 시장 안정 관련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될 경우, 금리 상방 경계 심리는 한층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월 중 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지난 1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을 언급한 다수 위원들이 내년 중 마이너스 아웃풋 갭 해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대응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 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금리 하락 모멘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지속되는 환경으로,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예상보다 넓은 범위로 변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외환시장 안정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 점화될 수 있으며, 글로벌 주요국 통화정책의 완화 사이클 마무리 국면 진입은 금리 인상 경계감을 자극하는 부담 요인입니다.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유력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1월 국고채 금리는 연초 수급 요인과 정책적 안정 메시지에 바탕으로 금리 하방 압력이 우세하겠으나,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하락 폭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초 매수세가 일단락된 이후의 금리 반등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국고채 3년 금리는 2.75~3.10%, 10년 금리는 3.05~3.45%의 레인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